로컬플러스

군산해경, 불법 낚시어선 강력단속

본격적인 낚시철을 맞아 해상에서 낚시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경이 강력단속에 나섰다.

군산해경은 지난 29일 7.9톤급 낚시어선 A호 와 7.9톤급 B호 등 2척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행위로 검거했다.

이는 29일 승객 20명을 태운 낚시어선이 암초와 부딪히면서 승객 6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낚시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한 해경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이는 고군산도 해상을 중심으로 우럭과 농어 등 다양한 어종이 잡히고 있어 주말이면 최대 130여척 5~6백명이 바다로 나가고 있으며, 낚시어선들은 낚시지점을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속도를 올려 출항하거나 정원을 초과하고 출입이 금지된 갯바위에 하선을 시키는 등 위험천만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상 · 하수도 공사현장 시설물 등 안전점검 실시

군산시는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여 오는 6월 3일까지 상·하수도 관련 공사현장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여름철 장마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및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대명동과 영동 등 불량수도관 교체공사장 외 11개소 공사현장과 군산호수 외 12개 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균열 및 붕괴위험, 기자재 작동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요소 발생 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보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경찰,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군산경찰서 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순회 교육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장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경찰은 군산성폭력 상담소와 공동으로 30일 대야 소재 추진장애인 자립장에서 60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형극을 선보였다.

이날 경찰은 형식적인 교육을 떠나 '우리몸은 소중해요, 아무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등의 노래와 게임을 통해 성폭력의 개념에 대해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인지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군산경찰서에서 자체 제작한 맞춤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설 내?외에서 성추행 피해 여부를 일대일로 조사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내 공원 CCTV 제 기능 못해

막대한 예산 들여 설치 관리소홀로 방치되거나 일부는 화면판독 불가능

군산시 아동보호용으로 도심소공원 및 놀이터에 설치된 145대의 고정식 CCTV 중 일부는 나뭇잎 등 주변 장애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해 군산시내 주요 공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된 방범용 CCTV가 관리소홀로 방치되거나 저화질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군산시 관내 공원에 범죄 예방용으로 설치된 CCTV는 총 876대이며, 1대당 설치비용은 최소 11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아동보호용으로 도심소공원 및 놀이터에 설치된 145대의 고정식 CCTV 중 일부는 나뭇잎 등 주변 장애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룡동 금강중학교 인근 소공원에 설치된 CCTV는 무성하게 자란 나뭇잎에 가려져 공원을 살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조촌동 군산교육문화회관 인근 소공원의 CCTV 또한 나무사이에 가려진 상태로 주변을 살펴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야간조명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부 CCTV의 경우 주변에 가로등이 없거나 빛이 들지 않는 야간에는 화면판독이 불가능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일부 CCTV는 저화질로 확인돼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소공원에 설치된 CCTV 145대 중 2011년 47대(130만화소), 2012년 23대(41만화소)의 경우 저화질로 인해 사람의 얼굴 식별이 어렵고 특히 야간에는 차량번호판 조차 식별이 불가능 한 상태다.

범죄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CCTV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공원에 인근 주민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범죄예방 용 CCTV가 있으나 마나 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어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설치기간이 오랜된 일부 CCTV가 저화질로 인해 일정거리 이상 떨러져 있을 경우 인식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나뭇잎 가림 현상이 확인 된 CCTV는 관련부서와 협의 후 가지치기를 진행하고, 고정식 CCTV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CCTV를 추가 설치를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의회 강경숙의원 관광 활성화 기여

'철도여행 관광객' 사업 유치활동으로 관광 · 문화 자원 타지역민에게 널리 알려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사진)은 시에서 추진하는『익산 철도여행 관광객』사업의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익산의 우수한 관광·문화 자원을 타 지역민에게 알리고 익산관광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익산시는 전국 규모의 철도전문 여행사 및 전라북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전라북도, 코레일 등과 협력하여 E-train(교육열차)를 활용한 철도관광객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문화관광과에서는 방문한 관광객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체험시설 이용 등을 적극 유도하고, 여행사 등 관련 단체와 적극 연계하여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철도여행 대상은 주로 수도권·영남권 단체 관광객으로 지난 4월 24일 320명을 시작으로 5월 10일 280명이 익산을 방문했으며, 5월 29일에는 480명 규모의 단체 관광객이 전용열차를 타고 익산을 방문하여 서동축제, 블링블링 주얼리 페스티벌 등 익산의 대표 축제에 참여했다.

단체 여행객의 구성도 수도권 일반 단체 여행객부터 동호회, 종교 순례객 등 다양 하다.

특히 지난 29일 서동축제를 방문하는 480명 규모 여행단의 경우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이 직접 나서서 대규모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익산을 방문한 철도단체 여행객들은 익산 최대 전통시장이자 전국에서도 손가락에 꼽히는 큰 규모의 북부시장, 3,500개의 전통 항아리가 장관을 이루는 고스락,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인 보석박물관 등 익산시민의 관광자원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갔으며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후문이다.

강경숙 의원은 이번 관광객 유치에 대해 "본인과 관련된 종교단체와 연계하여 우리시의 나바위 성당 등 천주교 성지 및 서동축제, 블링블링 주얼리 페스티벌 등 익산 의 종교성지 및 대표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익산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우리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에 힘을 보탰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민 · 관 합동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견학

30일 익산시 지역주민과 시의회, 언론인 및 관계자 등 30여명이 익산시에 조성 예정이던 하수슬러지 처리 공법과 유사한 시설을 운영 중인 부천시와 용인시, 청주시 등 3개 지자체의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을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계약해지 이후 표류하고 있는 익산시 하수슬러지 추진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회에 걸쳐 열린 토론회의 연장선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현재 시와 지역주민들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소각방식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존재하여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유사시설 운영현장을 확인하고 운영 관련 부서 및 위탁 업체 면담 등을 통해 의견 차이를 좁히는 한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자료를 수집해 향후 정책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6월 3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건조연료화 시설인 군산시 시설을 포함해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혼합 소각하는 아산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시민 주거복지향상사업 추진

군산시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23억9300만원을 투입해 시민 주거복지향상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선유지급여사업과 나눔과 희망의 집수리사업, 도심·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등이 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초주거급여대상자 중 자가 소유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해 수급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맞춤형급여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해 311동, 16억8700만원을 지원해 주택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나눔과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저소득층의 자가 소유 주택이나 전·월세 가구 등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지붕·창호·주방 등 시설보수와 도배·장판 등 간단한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9세대를 목표로 3억5600만원을 지원한다.

도심 빈집정비사업은 도심에 1년 이상 방치돼 있는 빈집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공영주차장이나 시민 쉼터로 5년간 무상 제공하는 조건으로 빈집을 철거해 도심경관 및 주거생활 환경개선은 물론 재난과 범죄예방으로 시민에게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으로 5개동을 선정하여 9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105동)과 빈집을 정비해 임대지원사업(2동)으로 총 107동,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 부과

상속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

군산시는 사망한 납세자의 상속인들에 대해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부과에 나서고 있다.

시민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몇 개월 뒤 시청으로부터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받았다.

A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취득한 적이 없는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 군산시청 세무과에 문의한 뒤 궁금증을 풀게 됐다.

이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은 상속 취득세 납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취득세는 매매와 같은 유상취득이나 증여·기부 등 무상취득에 상관없이 취득행위가 발생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법에 상속도 취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 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인 취득세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 취득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 재산 파악, 상속인간의 상속 협의 등을 감안해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분할협의서 등의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

현재 상속과 관련한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경우 전·답 등 농지인 경우는 취득가액의 2.3%, 농지외의 경우는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